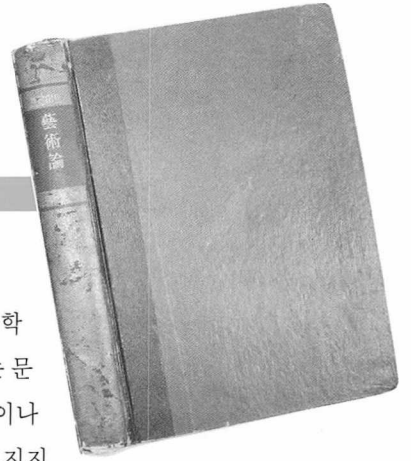


# 대낮의 몽상가를 망상의 늪에서 건져올리다

프로이트의 《예술론》

오완진 | 벤처기업협회 홍보팀장



백조출판사/B6변형/314면

지난 몇년 동안 나는 기업들이 번 돈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도록 하는 일을 맡아왔다. 그러다보니 언젠가는 좀더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일을 직접 꾸리는 사업을 할지도 모른다는 망상에 빠져 지난해부터 사회복지 관련 공부를 시작했다. 그런데 늦깎이 학생이 펼쳐든 첫번째 책은 교재도 사회복지 관련 이론서도 아니었다.

##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일깨우는가 고민해

학기가 시작하자마자 몇 가지 과제가 주어졌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인간의 행동을 연구한 이론서 하나를 요약해 제출하라는 것이었다. 바쁜 일상에 쫓겨 정신없이 보내다가 막상 리포트 제출 일자가 다가오자 엉겁결에 선택한 논문이 서울의대 정신과 조두영 박사가 쓴 <이상 초기 작품의 정신분석 — 12월 12일>이었다. 이 논문은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에 근거해 이 상의 유년시절과 이 상의 처녀작에 해당하는 작품을 차갑게 분석한 문예비평론이다. 이 논문은 인간행동을 연구하는 이론서와는 전혀 무관할 듯하지만, 이 상의 유년시절을 좀더 가까이에서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그가 어떤 과정을 거쳐 성장했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기 드문 안내서다.

나는 논문을 좀더 이해할 요량으로 책장에 꽂혀 있는 프로이트 관련서 몇권을 끌어내 수박 겉핥기 식으로 훑어보고 있었다. 그때쯤 어디선가 흘러나오는 희미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아주 오래된 기억으로부터 살금살금 기어나와 '나를 기억하느냐'며 다가오는 목소리의 주인공은 책장 귀퉁이에 꽂혀있는 낡아빠진 책, 프로이트의 《예술론》(이강호, 백조출판사)이었다. 《프로이트 전집》에 산재한 프로이트의 예술론을 한데 묶은 이 책은 <시인과 공상>으로 시작한다. 프로이트는 정신분석(정신의학)적 기술방법에 입각한 예술론을 설파하기에 앞서 도대체 "시인이란 이상한 사람들은 어디서 소재를 가져오는지, 또 어떻게 다뤄서... 우리의 마음을 일깨우기에 성공할까?" 하는 화두를 던진다.

나는 잠시나마 이 화두를 꺼안고 살았던 적이 있었다. 1980년대, 그 살벌한 군사정권 시대에 386세대의 막내로 대학에 다니며 작가가 되는 공상을 한 적이 있었다. 당시 '대낮의 몽상가'가 되고자 했던 학생들은 대부분 시대가 요구한다는 이유만으로 사회주의 또는 사회과학 문예이론을 즐겨 읽었다. 당시 읽었던 고리키의 《나의 문학수업》, 장공양(蔣孔陽)의 《형상과 전형》 등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하다.

그러나 공상이 깊어갈수록 나는 허공을 맴도는 바람개비와 같이 제

자리를 맴돌 뿐이었다. 가끔 대학 주보와 지방 대학에서 주최하는 문예공모전에 글을 내 막걸리 잔이나 언어먹고 있었지만, 항상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이 나를 더욱 깊은 망상 속으로 밀어넣곤 했다.

## 망상의 옷을 벗어던져라

나는 망상의 골이 깊어질 때마다 거나하게 취한 몸으로 이문시장 입구 건너편에 있는 헌책방 '신고서적'에 들르곤 했다. 그날도 거나하게 취한 상태로 책방에 들렀다가 백조출판사가 1968년에 펴낸 《예술론》을 만났다. 시큰둥한 표정으로 책갈피를 넘기던 나는 그만 깜짝 놀라고 말았다. 그의 이론은 한마디로 낯설었다. 지금까지 읽었던 이론들은 집단이 공유하는 어떤 행동과 사상을 전형화하는 작업으로 작품을 이해하도록 유도하는 데 반해 프로이트는 개인이 살아온 자취, 특히 유년의 기억에서 그 원형을 끄집어내고 있었다. 작품에 나타난 흔적만으로 작가의 정신적 질곡을 파헤치고 있으니 '전형론'에 익숙한 나로서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책을 사서 도망치듯 자취방으로 돌아온 나는 몇번을 곱씹어 읽었다. 책을 읽는 동안 나는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말았다. 그동안 읽었던 글들이 한낱 검불처럼 느껴질 뿐이었다. 나는 스스로 무식한 공상가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책을 읽고 난 후 나는 더 이상 글을 쓸 용기가 없었다. 무식한 놈이 용감하다고 했던가. 그동안 글을 쓴 것이 다 무식한 덕분이었다. 한편, 나는 도스토예프스키를 감히 노이로제환자로 규정하는 프로이트 같은 해부학자에게 내 글이 난도질당할까 두려웠다. 그야말로 또다른 망상에 사로잡힌 것이다(그러면서 지금도 나는 남의 작품을 안주거리 삼아 잘도 씹어 삼킨다). 어쩌면 나는 오늘도 그 옛날처럼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 최근에는 더욱 그런 생각을 자주 한다. 얼마 전부터 벤처기업인들이 만든 경제단체에서 일하고 있는데, 경제의 '경' 자도 모르니 자괴감이 들기도 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관련 책들을 부지런히 읽고 있지만 또다른 망상을 키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그 어떤 책이 망상 속에서 헤매고 있는 나를 다시 한번 깨워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전혀 뜻밖의 이유로 《예술론》과 다시 만나게 됐다. 이 늪은이는 지금도 망상의 옷을 벗어던지라고 말한다. 고마울 따름이다. ■